

## 제3주제

### 서해안 지식기반산업 특성화 전략

김 군 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해안 지식기반산업 특성화전략

- 경기도를 중심으로 -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군수

### - 목 차 -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교류 변화와 전망

제3절 중국 주요도시의 지식기반산업 실태와 육성방향

제4절 경기도의 지식기반산업의 현황과 과제

제5절 경기도 지식기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제1절 서론

중국은 2000년 현재 GDP가 10,778억달러로 매년 8%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0.6%나 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세계총생산 비중인 21.5%에 미치지 못하나, 2010년에는 그 비율이 20%(미국 16%로 하락)를 넘게 되어 세계 최고의 시장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도 WTO 가입후 정보통신, 인터넷 등 첨단산업으로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등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전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의 도시에서는 지식기반산업, 연구기관, 대학등이 집중되어 있어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기반산업에서 산업활동의 근간은 과학적, 기술적, 인적, 조직적 지식의 학습과 지속적인 응용에 있으며 기술혁신이 기업간 경쟁의 원동력이다. 실제 주요 OECD 국가들은 GDP의 50% 이상이 지식기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투자측면에서도 R&D, 훈련, 소프트웨어, 전문기술 등 무형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지식기반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 마련시키는 것이 변화가 극심하고 경쟁이 치열한 현 시대에 국제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관건이 되고 있다.

21세기에 서해안지역 특히 지식기반산업의 집중도가 높은 경기도의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는 경기도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중국 주요도시의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전략을 살펴보고 중국이 WTO 가입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 후 경기도 지식기반산업의 과제를 파악하고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제2절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교류 변화와 전망<sup>1)</sup>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각국의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등으로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중국에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그 결과 경제성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중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의류, 신발, 가전업종이 수출증가에 따라 성장세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경쟁력이 취약한 정보통신기기, 석유화학, 자동차 등도 외국인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점차 활성화되며 금융·서비스업의 발전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중국의 주요 품목별 무역특화도 지수 추이

구 분	중국				한국
	1995	1998	1999	2000	2000
<1차산품>					
농수산물	0.08	0.31	0.29	0.22	-0.47
석유제품	0.02	-0.13	-0.32	-0.45	-0.60
<경공업제품>					
섬유류	0.39	0.46	0.50	0.50	0.54
신발류	0.90	0.93	0.93	0.94	0.49
고무 및 타이어	-0.14	-0.05	-0.11	-0.10	0.42
<중화학공업제품>					
전기전자제품	-0.01	0.07	0.03	0.02	0.22
컴퓨터	-	0.30	0.25	0.25	0.44
무선통신기기	-	-0.33	-0.27	0.01	0.62
유선통신기기	-	-0.10	-0.09	-0.13	-0.58
가전제품	-	0.76	0.75	0.78	0.71
반도체	-	-0.55	-0.53	-0.59	0.05
기계류 및 정밀기기	-0.42	-0.33	-0.33	-0.31	-0.31
기계류	-0.52	-0.53	-0.51	-0.46	-0.22
정밀기기	-0.15	0.03	-0.03	-0.07	-0.56
자동차	-0.19	0.04	0.07	0.11	0.81
선박	-0.11	0.82	0.73	0.66	0.95
철강 및 금속제품	0.00	0.00	-0.09	-0.11	-0.04
화학품	-0.21	-0.20	-0.26	-0.29	0.00

자료 : 한국은행조사연구, “중국의 WTO가입 및 올림픽개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01. 10

주 : 무역특화도지수는 (해당품목의 수출액-수입액)/(해당품목의 수출액+수입액)으로 산출되며 이 지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수출특화, 음의 값을 가지면 수입특화를 나타냄. 따라서 동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해당업종의 경쟁력이 강하며 -1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약함.

무역특화도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를 통하여 중국의 주요 업종별 경쟁력추이를 살펴보면, 의류, 신발류, 가전제품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반이 취약한 무선통신기기 등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에 있어서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관세율이 큰 폭으로 인하되는 전기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 자동차, 철강 등의 대중국 수출이 호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중국의 관세 인하폭(18.1% → 9.0%)이 큰데다 올림픽을 앞두고 PDP TV, DVD 플레이어 등 디지털 가전제품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의 경쟁력이 취약한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무선통신기기, 첨단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컬러 TV 등 일반 가전제품의 경우 중국이 이미 상당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 추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판매망이나 A/S망이 중국기업에 비해 뒤떨어져 있어 수출 확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 주요 품목별 중국의 관세인하율(% , 억달러)

품 목 명	기준관세율 (1999년)(A)	최종연도평균 관세율(B)	관세인하율 ((A-B)/A)	이행최종연도	대중 수출액 (2000년 기준)
전기·전자제품	18.1	9.0	50.2	2005년	42.3(22.9)
석유화학제품	8.0	5.5	31.6	2005년	33.9(18.4)
섬유원료·사 직물	25.4	10.3	59.7	2005년	23.2(12.5)
의류	32.9	16.1	50.9	2005년	2.9(1.6)
자동차·부품	41.3	14.7	64.4	2005년	1.8(1.0)
철강제품	8.9	5.1	42.1	2004년	13.7(7.4)
기계·장비	15.6	10.0	35.9	2005년	12.3(6.7)
산업 전체	16.8	10.0	40.2		184.6(100.0)

자료 : 한국은행조사연구, “중국의 WTO가입 및 올림픽개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01. 10

주 : 1) ( ) 내는 2000년 전체 대중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나 지난 수년간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어 온 데다 앞으로 시장개방과 외국기업 진출의 확대로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일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중국 및 제3국에 대한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전기·전자의 경우 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진출이 확대되는 한편 중국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짐에 따라 중국시장은 물론 제3국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기업 및 다국적기업 중국 현지법인과의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 서해안 지역별 중국에의 수출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전자 및 전기 등의 첨단산업에, 충남, 전남은 석유화학, 철강산업, 비금속산업 등 중화학공업에 높은 수출비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기전자업종에서는 중국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으나, 향후 중국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해야만 할 것이다.

<표 3> 시도별 중국 수출현황(2000) (단위: 백만불)

	중국 계	경기도	인천	충남	전북	전남
합 계	18,455	3,497	852	1,548	278	1,374
일차산품	264	37	66	6	9	7
화학공업제품	4,008	260	76	683	82	700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199	390	29	31	5	1
비금속광물제품	2,362	129	266	587	12	305
석유류	2,607	351	21	7	59	1
생활용품	387	54	20	4	1	0
철강, 금속제품	1,732	190	87	57	16	347
전자 및 전기	4,233	1,701	94	127	57	8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1,553	354	192	47	35	6
잡제품	110	31	1	2	0	0

자료: 한국무역협회 데이터베이스(www.kotis.net)

### 제3절 중국 주요도시의 지식기반산업 실태와 육성방향

#### 1. 중국의 지식기반산업 육성 방향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생산입지(노동, 부품, 시장)를 갖추고 있으며 일반 제조업의 경우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하였기 때문에 전략적 육성없이도 시장의 힘에 의한 성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향후 전략적 산업 육성 방향은 첨단 산업이 될 것이며 특히 중국은 첨단 산업중 IT, 바이오, 항공우주, 신소재 등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장을 갖추고 있다.

IT 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반인 인터넷, 이동전화 등의 보급에서 중국은 세계 최고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세계 최대 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이동전화 가입자 올해 1억 2000만 돌파, 97년 3월에서 최대 5,000만 예상). 또한 물리, 생물, 화학 등 기초 과학이 어느 정도 발전해있으며, 항공우주 산업도 세계적 수준이다(2005년 유인 우주선 발사 계획). 제10차 5개년계획(2001~2005년)에서도 중국은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정보통신 기술의 응용, 인터넷 망 등 기초설비의 구축,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 등 3대 축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집적회로, 고성능컴퓨터, 대형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동통신장비 등이 주요 육성 산업으로 대표된다.

첨단 산업의 주요 입지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 및 광둥(深圳, 廣東) 등지로 제한되고 집중될 전망이다. 인재, 자금, 산업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를 고려할 때, 위 세 지역이 가장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의 세 도시는

모두 기존 경제 중심 도시로, 전국 각 지역 중에서 GDP 순위는 상하이 1위, 베이징 2위, 선전 4위(3위는 광저우)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징은 수도로서, 상하이는 역사적인 경제 중심지로서, 선전은 개혁개방의 상징도시로서 모두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과 상징성을 구비하고 있다. 첨단 산업은 기존 전통 산업의 기초 위에서 성장가능한 것이므로 과거 경제 특구 건립시에 보여준 것과 같은 황무지 개발 식은 불가능하다.

<표 4> 베이징, 상하이, 선전의 경제현황

구분	베이징	상하이	선전
99년 인구(만명)	1,257	1,474	394
2000년 GDP (억 유엔)	2,460	4,551	1,655
전국 순위	2	1	4
일인당 GDP (달러)	2,700	4,180	4,800

주 : 선전은 98년 인구, 일인당 소득은 經濟日報, 200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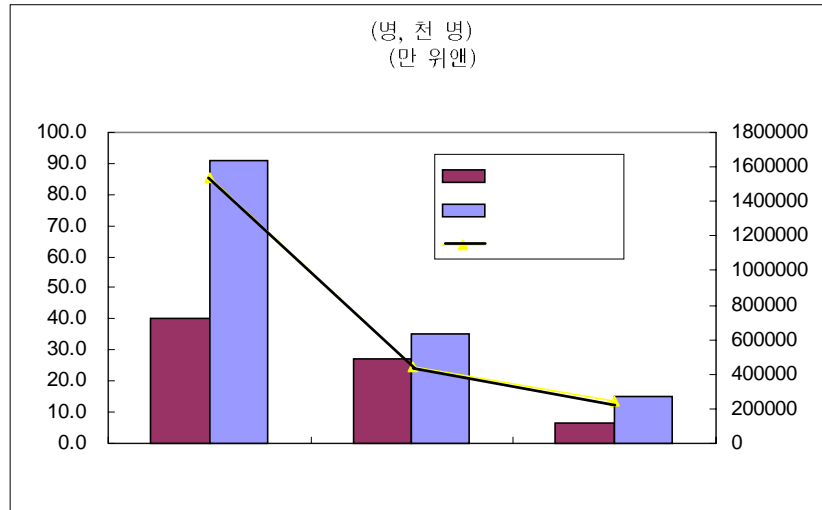
자료 : 中國統計年鑑 2000

## 2. 베이징의 장점 : 고급 두뇌 집중, 중국의 수도

다른 도시에 비해 베이징의 장점은 중국 최고의 연구개발 능력과 고급인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베이징은 북경대, 청화대, 인민대 등 64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상해는 41개, 선전은 매우 적음), 1,257만 인구 중 전문대학(大專) 이상 졸업 인구가 180만에 달해 전국에서 평균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이다. 과학기술 활동 종사 인원이 24만에 이르고 그 중에서도 북경 서북쪽의 중관촌(中關村) 지역에 30만명의 교원과 대학생, 20만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림 1> 각 지역의 교육 및 연구기관 비교



주 : 고등교육 시설은 인구 만명당 전문대학 이상 졸업 정원  
 연구인원은 자연과학 및 기술분야 연구기관 연구원 수(천 명)  
 연구기금은 동분야 기금 총액, 광둥은 선전을 포함

자료 : 中國統計年鑑 2000

또한 베이징은 수도이기 때문에 중국과학원 등 전통적인 정부 소속 연구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첨단 산업 인력 공급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정부 소속 연구기관이 486개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상하이 244개, 광둥 291개, 선전 5개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또한 베이징에는 중국 최대 컴퓨터, IT 업체인 리엔상(Legend)이 입지하고 있다(1986년 중국과학원에서 설립한 회사임).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관촌이 일종의 첨단산업기지로 형성되어 있다. 중관촌 지역의 매출은 2000년 약 186억 달러 수준으로 매년 40% 씩 급성장 중이며, 2000년 이 지역에서 2,461개의 기업, 하루 평균 6.5개 기업이 새로 창업하고 있어 해외 유학생들이 귀국하여 창업시 일순위로 고려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중국형 벤처기업 혹은 산학협동기업의 원형에 해당하는 리엔상(聯想), 베이다광정(北大方正), 칭화동광(清華東方) 등 기업이 집중되어 있다.

닷컴 기업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가장 영향력있는 기업인 신낭(新浪), 소후(搜狐), 왕이(網易) 등이 모두 베이징에 입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 및 집중 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도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베이징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개발 센터가 베이징에 집중하고 있다. 99년말 세계 500대 기업 중 154개 기업이 베이징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중 100개 기업은 중국 혹은 아태지역 본부를 베이징에 설치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루슨트, 삼성, 마쓰시다 등 45개 기업이 48개의 연구개발센터를 베이징에 건립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효과 때문에 이후 베이징은 중국의 첨단 기술에 관한 정보입수 등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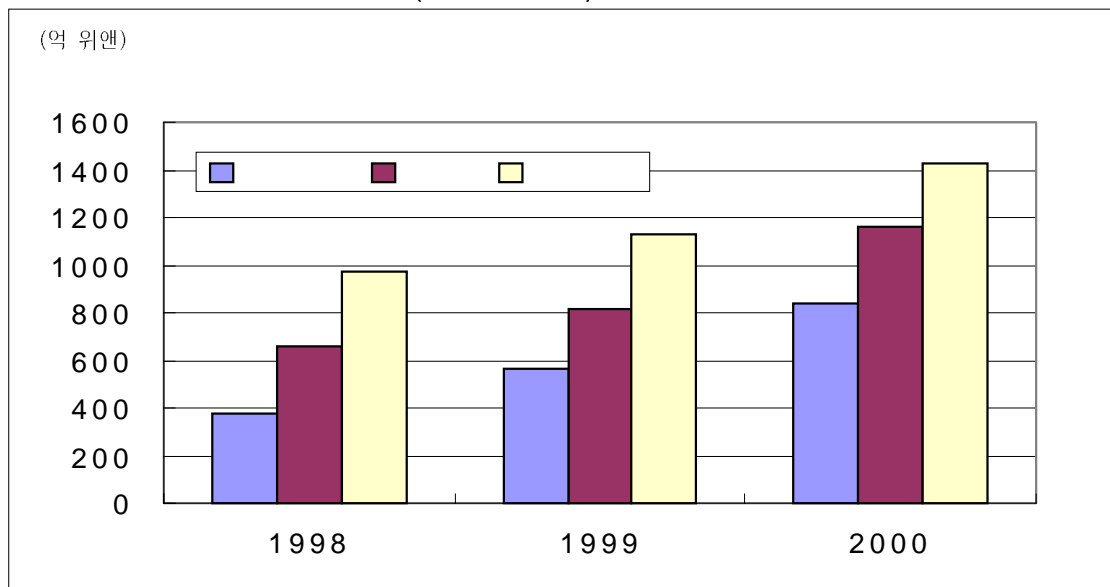
현재 베이징 지역은 가시적인 성과 면에서도 가장 앞서고 있다. 99년 3,000건의 발명특허 중 18.5%인 573개가 베이징에서 출원(상하이는 2위로 189개)되고 있으며, 2000년 기술교역 계약액이 143억 위안에<sup>2</sup> 달하는 중국 최대의 기술 교역 센터도 베이징에 소재하고 있다.

### 3. 상하이: 탄탄한 산업 기반이 장점

현재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상공업 도시로 자동차, 철강, 섬유, 화학, 전자 산업 등 거대한 전통산업 군을 거느리고 있다. 상하이는 인접한 장수, 저지앙 지역과 함께 중국 공업생산의 27%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인력, 기술, 시설 면에서 첨단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결합(생산 자동화, e-비즈니스, B to B 등)과 관련해서도 첨단산업에 대한 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다. 상하이는 이미 전통산업 뿐 아니라 첨단산업 생산액 면에서도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통신산업은 상하이의 대표산업이던 자동차 산업을 제치고, 상하이 최대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교환기, 광섬유, 반도체 등에서 국내 전체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첨단 산업 생산액 비교(1998~2000년)



자료 : 經濟日報, 2001.2.13

일부 전통산업의 사양화로 상하이는 산업구조 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도시로 첨단산업 분야 육성 의지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방직, 섬유 등 일부 전통산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하이 당국은 통신, 바이오, 신소재 등 3개 분야를 새로운 전략적 지주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첨단 산업 단지로서 장지양(張江), 차오허징(漕河涇) 등 첨단 산업 단지를 육성 중에 있다. 장지양의 경우 2000년 11월까지 31억 달러

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고 현재 240개 프로젝트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중이다. 또한 상하이에는 전자 뿐 아니라 바이오 및 제약 부문의 20여개 대형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특히 차오허징의 경우 루슨트, 듀폰, 영국항공우주 등 30여개 다국적기업이 14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계획 중에 있다.

유명한 푸동(浦東) 지역을 국제 금융 및 비즈니스 센터로 육성할 계획이어서 이와 관련한 시너지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푸동지역에는 최근 각국의 금융기관이 속속 운집 중이며, 세계적인 자본운용, 법률, 컨설팅 전문가들이 이 지역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첨단 산업의 창업 및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4. 선전 : 선진적 제도 환경과 시장 조건

경제특구인 선전은 중국의 여타 지역보다 선진적인 제도 도입 등에서 훨씬 신속, 과감한 정책을 펼 수 있었다. 처음부터 경제특구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특구 정부가 중앙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누리고 있어 독자적인 제도 도입도 가능하였다.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 지식경제육성, 자금조달 시스템 정비 등 첨단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선구적으로 도입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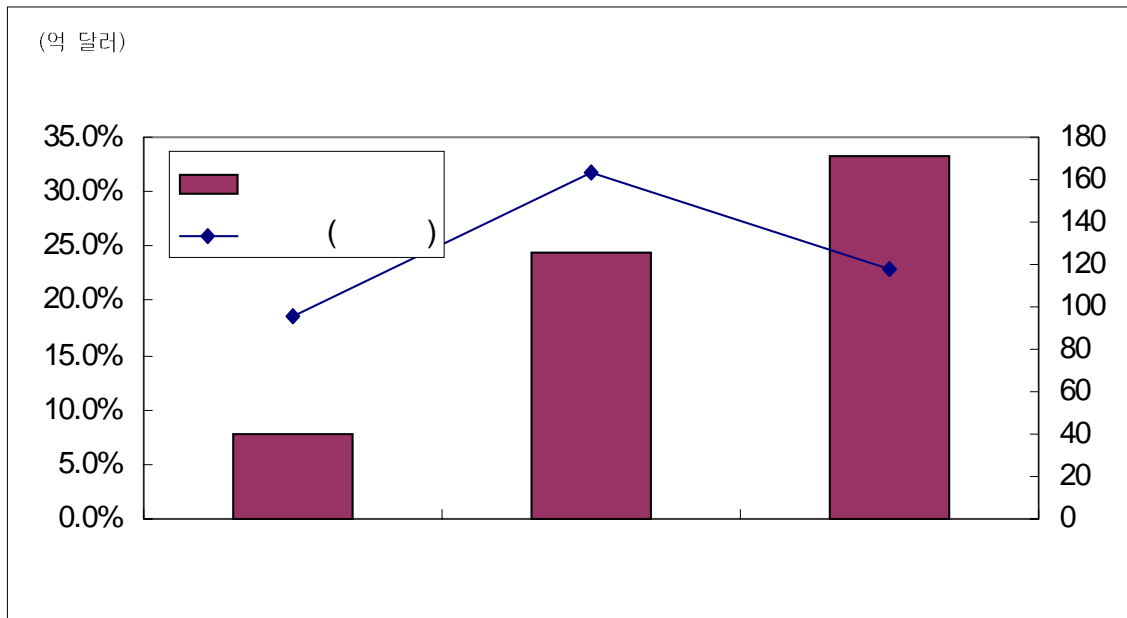
선전은 전국에서 최초의 벤처캐피탈을 설립한 도시이기도 하다. 선전시 첨단산업투자회사는 자본금 1억 위안(160억 원)으로 출발 현재 자본금 4억으로 확대, 해외 투자 유치 중에 있다. 이 투자회사는 수년간 선전시내 130여개 사 300개 투자 프로젝트에 14억 7000만 위안의 보증을 제공하는 등 실적을 올리고 있다.

선전은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정부 중

심 의 연구 개발 기능이 강한 베이징과 대비되고 있다. 선전 소재 727개 연구개발 기구 중 93%인 679개가 기업체 부설 연구기관이며 연구개발 인력의 90% 이상이 기업체 소속이다. 99년 시 정부가 공인한 150개 기술개발 사업 중 기업이 개발한 것이 113개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총생산의 8%, 연구개발 인력 비율은 전체 직공 총수의 13.4%에 이르고 있다. 특히, 중국 최고의 IT기업으로 평가받는 화웨이(華爲)는 인력의 40%가 연구개발 인력이다.

선전은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조립기지인 광둥 지역에 속해있고, 세계 최고의 중계무역기지인 홍콩과 면하고 있어 수요 개발 및 수출에 매우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생산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33.3%로 여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첨단산업 제품의 수출액과 수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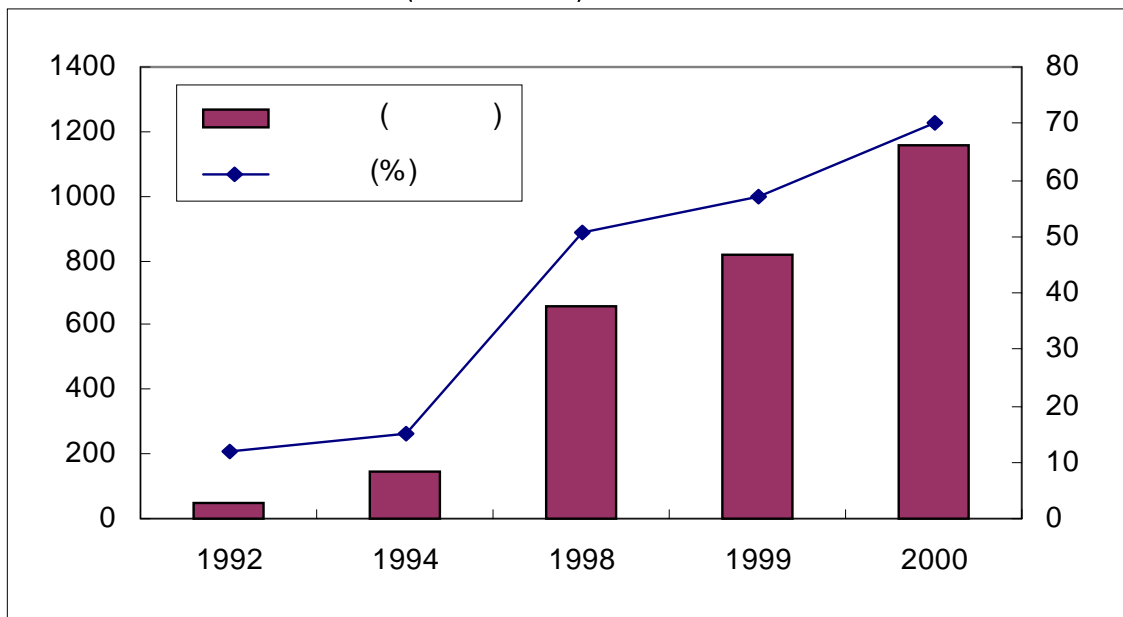


주 : 수출 비율은 해당 지역 내 경제개발구 첨단산업 생산액에 대한 수출액의 비율

자료 : 中國統計年鑑 2000

발전속도 면에서도 선전의 발전속도가 가장 빠르며, 첨단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급등하고 있다. 92~99년간 첨단산업 생산액은 연평균 50% 이상의 경이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0년 첨단산업 생산액 규모는 1,160억 위안 정도로 92년의 20배로 상하이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공업 생산액 중에서 첨단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92년 12%에서 2000년 70%로 급등하였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 매출은 99년 740억 위안으로 전국 1위이며, 99년 PC생산의 34%를 차지하였고, 교환기는 50% 차지, 그 밖에 하드디스크, 전지, 바이오 등에서 전국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4> 선전의 첨단산업 성장(1992~2000년)



주 : 점유율은 공업총생산액에 대한 첨단산업 생산액의 비중(%)

자료 : 深圳統計信息年鑑 1999, 경제일보2001.2.13

## 제4절 경기도 지식기반산업 현황과 과제

### 1. 지식기반산업 현황

#### 1) 지역별 산업집중도 분석

##### ■ 산업 대분류별 집중도 분석

입지계수로 분석한 지역별 산업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및 인천은 제조업에 입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제조업이 상당히 집적화되어 있고, 광주는 금융 및 보험업,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이 전국 평균에 비해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 대전은 통신업과 사업서비스업에, 충남은 제조업에, 전북과 전남은 통신업이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 ■ 제조업 중분류별 집중도 분석

제조업종을 입지계수로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집중화된 업종은 다음과 같다. 단, 집중화된 업종 선정은 입지상계수가 1.5(1999년 종사자수 기준)를 넘은 것으로 하였다.

경기도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에 집중화되어 있고, 인천은 목재 및 나무, 제1차금속, 조립금속, 기타 기계에 집중화되어 있으며, 광주는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기계, 자동차 등에 집중화되어 있다. 대전은 가죽 및 가방, 펄프 및 종이, 의료정밀기기 업종에, 충남은 음식료품, 펄프 및 종이, 코코스·석유핵연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에, 전북은 음식료품, 봉제의복, 목재 및 나무, 펄프 및 종이, 자동차 업종에, 전남은 음식료품, 코코스·석유핵연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1차금속, 운송장비 업종 등에 집중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lt;표 5&gt; 산업대분류별 입지계수

전산업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전남	전북
제조업	1.41	1.47	0.64	0.57	1.13	0.70	0.74
도매 및 소매업	0.80	0.82	1.08	1.10	0.89	0.94	1.03
숙박 및 음식점업	0.95	0.91	0.99	1.10	1.11	1.11	1.10
운수업	0.77	0.99	0.97	0.96	0.76	0.97	0.97
통신업	0.75	0.53	1.14	1.32	0.98	1.21	1.41
금융 및 보험업	0.79	0.79	1.22	1.12	0.93	1.04	1.19
부동산 및 임대업	1.23	1.03	1.18	1.33	0.63	0.57	0.80
사업서비스업	0.83	0.50	0.80	1.70	0.47	0.53	0.50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1.05	0.94	1.20	1.13	0.78	0.90	1.04

&lt;표 6&gt; 제조업 중분류별 입지계수

제조업종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음·식료품	0.89	0.45	0.93	0.97	1.63	2.18	3.37
섬유제품	0.78	0.25	0.62	1.25	0.73	0.90	0.37
봉제의복 및 모피	0.39	0.53	0.45	1.37	0.23	2.01	0.06
가죽, 가방 및 신발	0.92	0.30	0.07	1.81	0.23		0.08
목재 및 나무	0.75	4.40	0.62	0.80	0.44	2.10	1.42
펄프, 종이 및 종이	1.35	0.46	0.43	2.04	1.53	2.40	0.57
코르크, 석유정제품, 핵연료	0.14	0.86			3.87		4.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1.24	0.77	0.07	1.13	1.79	1.35	3.40
고무 및 플라스틱	1.25	0.85	1.99	2.04	1.11	0.60	1.03
비금속광물	0.87	0.59	0.51	0.45	1.62	2.35	3.20
제 1차 금속산업	0.57	1.50	0.48	0.58	0.79	0.80	3.30
조립금속제품	1.12	1.69	1.05	0.67	0.86	0.43	0.62
기타 기계 및 장비	1.04	1.76	2.04	1.08	0.89	0.42	0.34
컴퓨터, 사무용 기기	1.97	0.68		0.38	0.41	0.36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40	1.02	1.28	0.64	1.10	0.55	0.16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54	0.94	0.77	0.45	1.33	0.61	0.08
의료, 정밀, 광학기기	1.18	0.91	0.26	1.85	0.90	0.40	0.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0.89	1.37	2.08	0.38	1.28	1.77	0.05
기타 운송장비	0.10	0.11		0.62	0.27	0.04	1.87



## 2) 지식기반산업 집중도

### ■ 지역별 지식기반제조업 집중도

제조업중에서 지식기반제조업으로 분류되는 7개 산업(항공산업은 자료가 없어 생략하였음)에 대해 지역별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도출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기반제조업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집중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                          |
|-----------------------|--------------------------|
| ○ 정밀화학 : 경기도, 충남      | ○ 메카트로닉스 : 경기도, 인천       |
| ○ 전자 및 정보통신 : 경기도, 인천 | ○ 정밀기기 : 경기도, 인천, 광주, 대전 |
| ○ 신소재 : 경기도, 인천, 충남   | ○ 환경산업 : 경기도, 인천, 전남     |
| ○ 생명공학(의약품) : 경기도, 충남 | ○ 생명공학(농축산) : 충남, 전북, 전남 |

반면 지식기반서비스업은 IT관련산업, 연구개발관련산업, 문화관련산업, 광고관련산업으로 5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즉,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들이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lt;표 7&gt; 시도별 지식기반제조업 집중도

구 분	항목	전국	경기도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정밀화학	사업체 수	100.00	53.25	3.46	0.43	2.60	8.23	3.90	2.16
	종사자 수	100.00	72.75	1.21	0.00	2.37	8.26	0.56	0.24
	출하액	100.00	69.63	0.44	0.00	1.08	13.20	0.25	0.07
	연구개발비	100.00	76.08	0.00	0.00	0.68	12.81	0.16	0.02
메카트로닉스	사업체 수	100.00	44.08	11.18	2.43	1.94	0.97	0.49	-
	종사자 수	100.00	50.93	11.82	0.91	1.35	0.21	0.00	-
	출하액	100.00	50.46	14.96	0.54	0.50	0.08	0.00	-
	연구개발비	100.00	41.34	12.83	0.00	0.86	0.00	0.00	-
전자 및 정보통신	사업체 수	100.00	46.09	11.02	0.24	1.88	1.88	0.36	0.12
	종사자 수	100.00	46.82	6.40	0.00	0.60	1.81	0.50	0.00
	출하액	100.00	43.25	2.58	0.00	0.11	0.89	1.11	0.00
	연구개발비	100.00	59.65	5.58	0.00	0.17	0.32	0.19	0.00
정밀기기	사업체 수	100.00	42.42	9.09	6.06	9.09	3.03	-	-
	종사자 수	100.00	33.93	11.90	-	2.74	-	-	-
	출하액	100.00	25.46	19.81	-	1.42	-	-	-
	연구개발비	100.00	19.38	-	-	-	-	-	-
신소재	사업체 수	100.00	39.47	11.18	1.81	1.81	3.44	1.55	1.46
	종사자 수	100.00	35.70	11.54	1.35	2.17	5.11	1.54	2.78
	출하액	100.00	18.64	15.11	1.16	1.84	8.13	1.23	8.14
	연구개발비	100.00	1.42	1.20	0.10	0.01	94.32	0.02	0.02
환경	사업체 수	100.00	31.09	13.45	1.26	0.84	2.52	2.10	0.42
	종사자 수	100.00	28.58	9.76	0.00	0.00	1.22	4.73	0.00
	출하액	100.00	23.55	6.39	0.00	0.00	0.75	5.34	0.00
	연구개발비	100.00	21.09	4.55	0.00	0.00	0.00	0.00	0.00
생명공학	사업체 수	100.00	57.18	2.98	-	2.17	10.30	-	1.08
	종사자 수	100.00	66.99	1.53	-	2.99	7.47	-	0.11
	출하액	100.00	64.20	-	-	-	-	-	-

### ■ 지역별 지식기반서비스업 집중도

	IT관련산업		연구개발관련산업		문화관련산업		광고관련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	100.0 (8,012)	100.0 (153,681)	100.0 (29,473)	100.0 (306,682)	100.0 (5,518)	100.0 (77,516)	100.0 (6,039)	100.0 (29,605)
서울	55.0	56.1	36.5	41.5	30.9	44.3	50.7	66.1
경기도	7.9	9.9	14.3	18.1	14.9	8.5	9.9	7.0
인천	2.9	1.9	3.6	2.4	3.8	2.3	3.4	1.7
광주	2.8	2.7	3.3	2.1	3.1	2.2	3.0	2.2
대전	4.0	3.2	3.1	6.2	2.8	2.4	2.7	1.8
충청남도	1.3	1.4	3.0	2.2	3.2	1.6	1.6	0.8
전라북도	2.2	2.5	3.5	1.9	3.5	2.4	2.1	1.1
전라남도	2.4	2.1	2.9	2.2	3.6	1.8	1.8	0.9

### ■ 연구개발 집중도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주체인 연구개발분야는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식기반경제에서 필수적인 혁신역량인 연구개발능력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구 분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투자비	
	연구개발인력	비중	연구개발투자비	비중
전 국	212,510	100.0	11,921,752	100.0
경 기 도	49,144	23.1	4,305,840	36.1
인 천	10,279	4.8	487,692	4.1
광 주	6,374	3.0	146,472	1.2
대 전	21,302	10.0	1,741,960	14.6
충청남도	7,822	3.7	302,228	2.5
전라북도	3,139	1.5	93,560	0.8
전라남도	3,523	1.7	121,640	1.0

## 2. 경기도 지식기반산업의 과제<sup>2)</sup>

### 1) 경기도 지식기반산업의 혁신 특성

경기도 지식기반산업의 혁신특성은 생산네트워크, 사업서비스네트워크, 지식네트워크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생산네트워크측면에서는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소재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생산된 제품은 수도권 이외의 국내, 서울 그리고 경기도의 타 시·군에 주로 판매되고 있다.

둘째 사업서비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법률, 회계서비스를 제외하면 대체로 업체 내부에서 처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서비스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법률·회계, 기계장비 임대, 운송물류 서비스는 업체 소재지에서, 시장조사·경영상담, 기술검사, 광고홍보는 서울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셋째, 지식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제품 개발 및 판매관련 정보는 대부분 주변의 유사 업종 종사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획득하며,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은 낮다. 신기술 획득 및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서는 독자개발 혹은 타기업으로부터 유상·무상으로 기술적 도움을 받는 비중이 높으며, 역시 대학·연구소로부터 기술 획득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산업의 상대적 우월구조를 절대적 우월구조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의 지역간·부문간·경제 주체간의 생산·서비스·지식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식·정보의 선순환을 통한 시너지의 창출이 필요하다.

## 2) 경기도 기술지원시스템의 구조 및 문제점

### ■ 경기도 기술지원시스템의 구조

경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경기도),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주관 부처로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등이 있으며, 이들 중앙정부의 부처들은 주로 대학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거나, 입지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경기도와 협력해서 실시하는 중요 사업으로 과기부의 RRC, 산자부의 TIC와 DIC, 중기청의 산학연컨소시엄 사업과 기술지도대학(TRITAS) 사업이 있다.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와 달리 독자적으로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KRRC)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기술업무를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기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 경기도 기술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경기도의 기술지원시스템의 문제점은 크게 6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는 연구성과의 경기도 확산 메커니즘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산학 연계정책(RRC, KRRC, TIC, 산학연컨소시엄 사업 등)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산학 연계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기업은 직접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국한되고 있다. 연구성과가 경기도 전체 기업에 확산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이전부서를 설치하여 대학의

연구성과 일부를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도 이전할 수 있는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청 내부의 부서간 조정 메카니즘이 부재하다. 중소기업 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테크노펀드와 벤처펀드 조성 등 다양한 자금 및 기술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들 시책들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서 시책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지 않으며, 시책간 업무의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청 내에 기술혁신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학연계 정책의 사업간 차별화가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산학연계 정책이 초기의 목적을 상실하고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KRRC 사업의 참여대학 축소 및 대형화를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일부 중앙정부 추진사업에 대한 경기도 개입이 구조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등 중앙 정부의 입지지원 전략을 통한 간접적 기술지원 사업이나 과기부의 ERC, SRC 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이 구조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역혁신 능력 제고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조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대학의 연구결과 축적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개별 사업의 지원규모가 작고 관리할만한 우수한 연구성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개별 사업의 연구결과를 축적할 수 있는 대학별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우수한 연구성과의 축적과 지속적 활용 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부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산업을 구성하는 가치사슬(value chain)의 취약한 고리를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부재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술지원사업은 대학의 교수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통해 업체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사업이 경기도의 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부문인지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다. 경기도 산업의 기술적 수준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원부문의 우선순위 설정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경기도의 높은 연구개발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산업클러스터에 바탕을 둔 지식의 생산과 전달, 활용의 순환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제6절 경기도 지식기반산업 경쟁력강화방안

### 1. 중국 교류협력전략지역 선정

경기도는 浙江省과 상하이를 포함한 그 이북 연해 성시(省市)들과 경제교류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중국의 동부 연해지역은 중국 전국 면적의 13.6%이나, 인구는 5.36억인으로 전국 인구의 42.4%를 점하고 있으며(2000년), 전국 667개 도시중 45%인 300개 도시가 연해 지역에 있다(1999년). 따라서 서해안 지역 지자체 및 도시별로 중점 전략지역을 선정하여 분담해야 할 것이다. 황발해 연안지역내에서는

전략 지역 및 도시 선정시 지리적 거리 보다는 경제와 산업의 보완 관계 등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와 교역을 위해서는 중국의 행정구역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 황발해 연안 주요 도시의 행정구역 면적 - 大連(12,754km<sup>2</sup>), 北京(16,808km<sup>2</sup>), 天津(11,920km<sup>2</sup>), 青島(10,922km<sup>2</sup>)

이러한 전략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중국시장에의 진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첫째, 입찰관련 제도와 거래 및 계약에 관한 각종 관행 등 중국시장의 전반적 투자환경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실태조사의 축적이 필요하다. 특히 공식적으로 드러난 투자환경외에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인 투자환경, 가령, 인맥과 거래 관행 등을 올바르게 꿰뚫고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하다. 둘째, 직접적이고 정공법적인 투자, 진출보다는 관련시장의 유망 종목별 투자, 진출을 통하여, 투자환경과 연관부문과 종목으로의 연결효과를 탐색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이다. 셋째로 단독 진출보다는 중국 국유기업이나 중국진출 경험이 있고, 중국문화와 현지사정에 밝은 화교기업 등과의 동반투자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넷째로 타국 업체들이 진출해 있지 않은 중·소도시나 대도시의 틈새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단계적 프로그램에 의한 현지화 노력이 필수적이다. 즉, 정확한 현지 조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꾸준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2. 경기도 지식기반산업 경쟁력 제고

### 1) 연구기반시설 유치



연구기반강화는 디지털경제시대의 주역이 될 인재 양성과 벤처 육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경기도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산업현장과 교육과의 괴리’라는 현실타개를 위해 벤처기업의 입주를 통한 교육공간에서 신속한 스핀오프(Spin-off) 환경을 마련할 수 있고, 21세기를 선도할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과학기술), NT(나노기술), CT(문화산업기술), ST(우주기술)를 집중육성할 수 있으며, 외국 벤처기업의 입주를 추진하여 기술경영기법을 벤치마킹 또는 이전받아 경영에 접목시킴으로써 벤처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첫째 “경기과학기술원(가칭)”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성남밸리 또는 판교밸리에 고급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하여 지역혁신의 거점화를 추구할 수 있고, 외국 대학 분교 및 외국인 기업 유치 입주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성과를 즉시 생산에 연결시켜 상업화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반산업(Advanced Science-Based Industry) 태동을 목표로 하여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디자인산업, S/W산업의 고도화를 추구할 수 있다.

둘째, 외국 저명 대학과의 네트워킹 및 분교를 유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대륙진출 Hub, 동남아 진출의 Hub, 태평양 진출의 Hub로서 R&D글로벌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 산학 연계형 연구인력 운용제도 확립

경기도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이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거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 인력

의 끊임없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수연구센터(Center of Excellence)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대학들 중 일부 대학들은 실질적인 연구를 담당할 우수한 대학원생들과 분석 및 실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산학 연계형 연구인력 운용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 산업체 연구인력 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산업체 연구인력 교류프로그램은 지역 대학의 연구센터에 산업체의 연구인력이 연구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경기도는 매년 지역 산업체의 연구인력 지원자들 중 우수 인력을 선발해서 각 연구센터와 연결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험 및 분석 전문요원 pool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학 연구센터의 고가 시험 및 분석 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요원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대학 연구센터에서 이들 전문요원을 고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가 지역 대학 중 일부 대학을 전문 분석요원 양성 부문에 특화시키고, 이들 졸업생을 전문요원 pool로 구성해서 필요한 대학 연구센터 및 연구소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기술혁신기금의 통합관리 및 확대

경기도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며 다양한 기금의 종류를 기술혁신 단계별로 차별화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벤처기업 지원자금의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다. Techno-Fund, 경기엔젤클럽, 경기해외벤처펀드 등의 통합관리를 통해 창업보육센터, 지식산업센터(KIC), 경기벤처빌딩, 경기지식산업안

양센터, 경기벤처단지, 경기벤처타운 등 다양한 기술혁신 주체 또는 단지에 원활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기 벤처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벤처 캐피탈 유치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업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서울 본사 의존도가 없는 경기도 토속 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 부처 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일부를 지방 정부로의 이양을 타 시도와 공동 추진하며 지방 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신규 클러스터' 조성 재원으로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 정책의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국세로 흡수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세원화하고, 그리고 주세, 전화세를 중앙과 지방이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공동세목화하여 벤처펀드에 일부를 산입하고, 종합토지세, 재산세 징세 노력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고 일부를 벤처펀드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

#### 4) RRC 등 중앙정부 추진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참여 확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은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워 기술이전 또는 상업화 과정에서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 가능한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과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재단(KOSEF)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연구개발사업 기획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기획·관리체제가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중앙정부부처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지역과 관련된 일부 사업(예: RRC사업 등)추진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연구과제를 우선 지원하도록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권고함으로써 경기 클러스터의 인지도 제고 및 연구비의 전략적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클러스터내 혁신 시스템인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대학연구소-중기센터-경영/기술컨설팅사-금융기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연구개발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3. 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제도적 장치 개발

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 산업 클러스터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 OECD 등 선진국에서는 개별 연구단지와 산업단지의 개발과 같은 하부구조 조성 전략으로는 지식의 생산과 활용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려우므로 가치사슬 상에 묶여져 있는 생산네트워크와 관련 주체들을 연계해서 지식의 생산과 활용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산업 부문별 집적이 이루어져 있지만, 집적된 생산 및 연구 주체들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 주요 클러스터의 발굴 및 홍보가 필요하다. 경기도에 집적된 주요 전략 클러스터의 발굴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이해 집단으로 구성된 지역 포럼을 통해 주체들간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주요 클러스터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클러스터 기반의 혁신전략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

치 개발이 필요하다. 클러스터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의 공식적 지정 및 지원의 법제화 등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클러스터 육성법의 지정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산업육성 관련법을 정비하여 “경기클러스터발전촉진법(안)” 제정하며 지식 네트워크로서 ‘기업-대학-출연(공공)연구소’ 체제를 구축하여 클러스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토연구원, “지식정보화시대의 산업입지 및 군집체계 연구”, 2001.
- 경기개발연구원, “알기쉬운 경기도 경제지표 2001년 8. 9. 10. 11. 12월호”.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벤처기업유치 촉진방안”, 2001. 7.
- 과학기술부, “경기도 과학기술 발전 5개년계획”, 2001. 7.
- 삼성경제연구소, “중국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2001.2.
- 정보통신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2001, 12.
- 중국통계년감, 2000.
- 중국 경제일보, 2001. 2. 13.
- 한국은행조사연구, “중국의 WTO가입 및 올림픽 개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01. 10.

## 각주

- 1) 한국은행조사연구인 “중국의 WTO가입 및 올림픽 개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2001. 10)”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 2) 과학기술부, “경기도 과학기술 발전 5개년계획(2001. 7)”의 내용중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 정리하였음.